2020년 문산북중학교 추천도서 서평 2

푸른 머리카락(분야 : 문학)

(읽기 난이도 하 별점: ★★★☆☆)

주제 키워드

다름
SF
외계인

서지정보

푸른 머리카락 /

남유하,사계절,2019

상황별 추천

사춘기 청소년
다름, 차이, 이해, 포용, 수용, 문화적 감수성

작성자

문산북중 사서교사 김지연

해당 서평은 문산북중학교에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(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)

책 소개

"처음에는 나도 노력해 봤어. 근데 애들은 나랑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자이밀리언이 신기한 것뿐이더라."
푸른 머리카락의 외계인이 지구상에 있다면? 나는 친구가 될 수 있을까?

낚시 글

평범함. 오늘을 사는 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대한민국에서 아주 평범하고 튀지 않게, 친구들과 비슷하게 잘 지내는 것. 왜냐고? 학교생활을 하면서 다르다는 것, 혹은 튀는 건 아주 큰 문제거든. 모든 이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핵인싸거나 아싸이거나... 하는 중대한 문제가 걸려있다고!
그런데...

"반투명한 푸른 갑각으로 뒤덮인 피부, 집게 같기도 하고 뾰족한 뿔 같기도 한 손톱이 달린 기다란 손가락, 툭 불거진 황록색 눈동자, 그리고 촉수로 뒤덮인 입. 그들의 겉모습이 아무리 인간 같다고 해도 그건 보호색으로 몸을 숨기는 곤충처럼 위장술일 뿐이다. 그들은 인간이 아니다. 하필이면 왜 내 앞자리에 자이밀리언이 있는 거야"

불편하다, 푸른 머리카락을 가진 재이가 내 앞에 앉아있다는 사실이. 이 아이는 자꾸 사랑했지만 나를 떠난 내 고모를 생각나게 하니까...

한줄 발췌

"처음에는 나도 노력해 봤어. 근데 애들은 나랑 친해지고 싶은 게 아니라 지이밀리언이 신기한 것 뿐이더라. 머리카락을 뽑아 달라든가. 손락을 물에 넣어 보라든가."

2020년 문산북중학교 추천도서 서평 2

연의 편지(분야 : 문학)

(읽기 난이도 하 별점: ★★★★☆)

주제 키워드

친구관계, 학교폭력
진정한 우정
편지

서지정보

연의 편지 /

조현아,손봄북스, 2019

상황별 추천

친구 관계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중·고등학생
연대와 지지의 힘을 온전히 느끼고 싶은 청소년

작성자

문산북중 사서교사 김지연

해당 서평은 문산북중학교에 권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(무단 복제 및 배포 금지)

책 소개

"내가 모두의 표적이 되기까지 이틀이면 충분했다."
나를 쳐다보는 그 눈빛들에서 도망치듯 벗어났어.
도착한 곳에서 편지와 함께 찾아온 마법 같은 시간.
이 편지를 따라가면 너를 만날 수 있을까?
너를 꼭 만나고 싶어.

낚시 글

지극히 일상적인 날이었다.
" 그만해."
내가 뱉은 이 한마디로 인해 내가 지녔던 내 세상이 무너지기 전까지는...

그렇게 도망치듯 온 새로운 학교.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. 전학 오면 다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...
그 때 그 말을 참았더라면 어땠을까.

"안녕! 우리 학교에 온 걸 환영해. 이 편지는 네게 이곳을 소개하기 위해 쓰였어." 이 한 장의 편지를 발견한 뒤로 무작정 이 친구를 찾기 시작했어. 넌 도대체 누구니? 너무 궁금해. 이렇게 다정한 네가 누군지.

이상하지? 편지와 함께 찾아온 이 시간. 매일매일이 마법 같은 날이야. 이 편지를 따라가면 너를 만날 수 있을까?

...언젠가 꼭 고맙다고 말할 거야.

한줄 발췌

"내가 다른 사람의 부당한 일에 나서서 그만하라고 할 수 있었던 건 모두 네 덕분이야. 네가 나에게 그렇게 해주었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었어."